



농림축산식품부

설명자료

정부혁신
보다 나은



2019년 10월 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역정책과 과장 김상경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515)

구제역방역과 과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 / 제공일: 10월 8일(총 3매)

적정임기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민통선 출입 가능한 교량 소독조치 등 경기 북부 방역관리에 이상없으며,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사건 사전 초동조치와 진단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대응 중

[서울신문, 한국일보 10.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으로 출입 가능한 교량은 차단방역 조치 중이며, DMZ를 포함한 민통선 이북 접경지역에 대한 항공 방제, 파주·연천의 농가·시설·주요도로 소독 등 경기 북부지역의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- 분석 등 물리적인 시간을 제외하고 시료 이동 등은 헬기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 중이며, 신고 접수 즉시 소독, 이동통제 등 초동조치가 이루어지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음
- 10월 8일 서울신문 <멧돼지 발자국 천지 민통선. 교량 소독 시설 하나 없었다>, 한국일보 <헬기 떠도 10시간 걸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. 더 줄일 수는 없을까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

주요 언론 보도내용

- (서울) 파주·연천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출입하는 교량 10곳에 소독시설이 없어 차량·사람 대상 방역의 허술을 지적하며,

-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확산됐다면 전파 매개체가 ‘멧돼지’가 아니라 ‘사람’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
- (한국)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에서 검역본부 판정까지 반나절이 걸려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도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- 파주·연천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량은 2곳으로 나머지 8곳은 군사용으로 민간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 - 영농, 방문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일정 시간대만 교량 통과가 가능하며, 교량에는 U자형 자동소독 시설과 야자매트, 소독조 등을 설치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* 파주시는 파평면의 다리가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아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생석회 도포를 검토하여 추가할 계획
-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 방역관리를 위해 접경지역 14개 시·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농가 방목사육을 금지하고,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보급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.
 - 최근 DMZ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군에서는 DMZ를 포함한 민통선 이북 접경 지역의 하천과 주요도로에 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, 파주와 연천지역 주요 도로에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, 농장 진입로마다 농장초소를 운영하여 차량과 사람의 양돈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-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는 검역본부까지 시료를 헬기로 이동시켜, 실험과 분석 등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진단시간을 최단으로 단축하였습니다.
-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가축방역관을 투입하고, 채취한 시료는 산림청, 소방청 등에서 지원받은 헬기로 신속히 이송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
- 정밀검사 결과.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살처분, 이동중지 등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진단시간 단축 외에 의심신고 접수 즉시 초동방역팀이 출동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소독과 이동 제한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, GPS로 파악되는 역학관련 시설·농장 등에 대한 통제 등 초동방역조치도 신속히 실시하여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 태풍 등 헬기 이송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한 지자체와 협력방안 등도 검토하여 질병 진단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.